

제29회 아산서평모임 (2019. 11. 20.)

이영석, 『지식인과 사회 -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』(서울: 아카넷, 2014)

하 흥 규 (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)



- 역사학자의 저술이 사회학자의 독서를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든 측면
 - 사회사와 지성사의 결합
 - 사회학의 발달과 관련 깊은 역사 (특히 7장 ‘사회와 역사’)

- 사회학의 기원: “18세기의 사고는 신을 잃어버렸으나 사회를 발견했다.”
 -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본질의 이해
 - 사회 변동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원인의 추구
 - 제도와 사회적 다양성
 - 사회적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사회 변동
 -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따른 사회의 구분과 사회의 점진적인 발달
 - 분업
 - 소유와 사회 계층
 - 사회 갈등의 인식
 - 분업의 사회적 역할

- 사회학의 역사에서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의 자리
 -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에 대한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의 무시
 - 아담 스미스는 예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지만, 그러나 사회학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.
 - 특히 아담 퍼거슨은 분업의 경제적 결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는 사회적인 것의 이해를 추구한 첫 번째 사상가라 할 수 있으며, 또한 그의 갈등에 대한 견해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학 연구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회학의 역사에 미친 퍼거슨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.
 - 19세기 영국 사회학에서 핵심 인물인 허버트 스펜서는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 (특히 Ferguson과 Millar)을 알고는 있었지만, 큰 관심을 두지 않음.

- 20세기에 저술된 사회학의 역사에서도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의 실종
 - 사회학의 정전화(canonization) 작업 가운데서 제외됨(Marx, Durkheim, Weber)
- 사회학의 역사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의 자리가 남겨져 있지 않은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 자체의 역동성 상실(387-388쪽)과 관련이 있을까?
 - (프랑스 혁명, 사회주의의 등장, 낭만주의 등의 영향)



- 계몽운동과 오리엔탈리즘
 -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영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했을 것으로 보면서 제9장을 쓰신 것으로 보임.
 - 대부분의 논의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실린 내용들만을 조사하여 서술하고 있음.
 - 그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정의하기 위해 아담 스미스와 아담 퍼거슨을 인용하고 계신데, 그들의 책에서 왜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.
 - 보기를 들어, 퍼거슨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“오직 유럽만이 문명을 가졌다고 확신한” 몽테스키외의 태도를 본받고 있기는 하지만, 중국이 유럽의 미래, 곧 점차로 중앙집권화된(고도로 관료화된) 상업적 군주국가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.



- ‘문필 공화국’을 하버마스가 말하는 ‘공론장’으로 볼 수 있을까?
 -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에게서 ‘정치’에 대한 논의가 많이 발견되지 않음. 왜 그런가?
 - 사회 계약론자들에게서 시민사회(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)는 곧 정치 사회라 할 수 있을 텐데,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시민사회는 곧 상업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임.
 - 퍼거슨의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(아담 스미스의 것과는 다른) 그의 시민군에 대한 태도에서도 보여지듯이 상당히 정치적 관심이 있어 보임.
 - 저자 후기에서 “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한 사회의 지적·문화적 활력이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준다.”고 쓰셨는데, 그 이유에 정치적인 논의의 부재를 첨가할 수 있을까?